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stume from the Genre Painting of Cho-sun & Japan and the Cognition of the Westerners in 19th

-Centering on Ki-San's Painting and Ukiyo-e-

Kim, Mi-Jin* · Cho, Woo-Hyun

Inha University¹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costume that is drawn on the genre paintings of Cho-sun and Ukiyo-e that had been introduced to the Western in 19th's and the recognition of westerner about it. The research materials with the preceding research regarding the genre paintings of Cho-sun and ukiyo-e was the paintings, it tried to observe the wearing dress of the person which is depicted specially at the work in the center. The paintings of Cho-sun was worked by Ki-San Kim, Jun-geun and it was mostly the 2nd or 3rd data.

The genre painting is the picture which draws the human being. From Cho-sun, it named as a 'vulgar painting' or 'the genre painting', 'Ukiyo-e' it named from Japan, character it did with advancement of 18, 19century popular cultures together.

Ki-san's work preferred natural composition and it used a simple line and natural composition so, it was represented the beauty of Cho-sun in pursuit of simplicity and plane. It laid more emphasis on the public morals than the depiction which the person is minute. Han-bok of the later Cho-sun is expressed on the paintings was shown the typical costume of that time by a graceful line and natural color.

Ukiyo-e was drawn by using a preparation effect and a sense in the other side, the composition which emphasizes the person was most. It was depicted by a line where the expression is strong and it pursued sense refinement Beauty. By using showy and decorative colors, an effect that was associated the gorgeous color with the Japanese art was strong and the depiction of person like a pose, expression and a

clothing, was more expressed than the public morals. Kimono was drawn minutely by using gorgeous colors on Ukiyo-e. Especially, various kinds of patterns and prints on Kimono textiles were originated a fantasy and adoration about the Japanese costume to the westerners by feeling an exotic atmosphere. The characteristics of Kimono that was on Ukiyo-e, influenced to the westerner to make a cultural taste, 'Japonism', and it was fashioned.

It was a 19th centuries that the genre paintings of both countries had been introduced to the Western, there we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quantity and the formation.

Ki-san's work which was produced the course which toward the West Europe was few, flows was informal. Ukiyo-e, the mass production possibility because was a woodcut so, it was able to purchase easily in the price which is cheap, when it is exported to the West Europe, it was used as a parcel paper of Tea. Also it was exported officially which was published, it flowed out in the West Europe. They well noticed some peculiar fact of both countries but when comparing the matter of degree, the dress culture of the Cho-sun is meager relatively. It is resulted from the ease that the beauty of traditional dr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of the both nations will can be recognized easily are to the Western person, but follows with the effect the quantity of paintings, the connection, the price, the ease of purchase and the yes or no of trade with the western.

19세기 한·일 풍속화에 묘사된 각 국 전통복식의 특징과 이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

-Ki-San 풍속화와 Ukiyo-e를 중심으로-

김미진* · 조우현

인하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중세유럽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한 삽화와 교회 건축물의 스테인드글라스양식 발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은 의사소통과 의미전달의 도구로서 언어,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19세기 서구에 전해진 Cho-sun의 풍속화와 우키요에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과 착용된 복식, 풍속, 배경의 형태와 특성들은 서양인이 조선과 일본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 서양에 전해진 조선의 풍속화와 우키요에에 표현된 전통복식의 특징과 서양인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는데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자료는 조선풍속화와 우키요에에 관한 선행연구와 회화 작품이며, 특히 작품상에서 묘사된 인물의 착용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의 풍속화는 기산 김준근의 작품이었으며 대부분은 1차 직접 자료가 아닌 2, 3차의 화보 중심이었음을 밝힌다.

풍속화는 인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에서는 ‘속화’ 또는 ‘풍속화’로, 일본에서는 ‘우키요에’라 칭하며, 18,19세기 서민 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행하였다. 각 풍속화의 화법과 화풍, 회화 위에 표현된 전통복식의 특징을 보면, Ki-San 풍속화는 자연스러운 구도를 선호하고 질박한 필선과 자연의 색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담백함을 추구하여 조선시대의 미를 구현하였다. 인물의 세밀한 묘사보다는 조선의 풍속을 그림에 담아내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 회화에 표현된 조선후기의 한복은 단아한 선에 의한 형태 묘사와 소박하고 담백한 복색의 특징을 나타내며, 궁중복식과 어린이의 복식, 무녀의 옷, 예복의 경우에는 원색을 대비시켜 화사하고 산뜻한 조선후기복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에 우키요에는 대비적인 효과와 감각적인 구성을 선호하였고, 최대한 인물을 강조하는 구도가 대부분이었으며 굵고 표현력이 강한 선을 사용하여 감각적인 세련미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장식적이고 화려한 색채들을 사용하여

일본회화하면 색채를 연상할 정도로 강렬한 효과를 내었다. 풍속의 장면보다는 인물의 묘사, 즉 자세, 표정, 옷 등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다. 우키요에에 표현된 일본 전통복식 역시 주로 화려하면서 강렬한 색채의 사용과 세밀한 묘사를 보여준다. 특히, 기모노천의 다양한 문양과 그림들은 서구인에게 독특한 이국적인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일본복식문화에 대한 환상과 동경심을 유발하였다. 우키요에와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전통복식의 특성은 서양인에게 ‘일본취미’라를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였고 ‘자포이즘’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형성되어 유행하였으며, 서양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양국의 풍속화가 서양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지만, 그 양과 성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났다. 기산 풍속화는 제작된 수량이 적었으며, 서구로 유입된 경로는 비공식적이었다. 우키요에의 경우에는 목판화였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서구에 수출되는 차(茶)포장지로 사용되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수출되거나 출판되는 등 적극적인 경로를 통해 서구로 유출되었다.

따라서, 서구인이 조선과 일본의 복식문화를 접하고 그 특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풍속화는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서양인들은 조선을 화사한 백의를 즐겨 입고 산뜻한 원색의 한복을 화려롭게 착용하는 복식문화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이며 감각적인 복식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인지하였지만, 그것의 폭과 깊이를 비교할 때 조선의 복식문화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형세를 보인다. 이것은 양국의 전통적인 복식미와 풍속화의 회화적인 특성이 서구인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용이성의 문제도 있지만, 서양에 유입된 회화의 수량, 경로, 가격, 구입의 용이성, 서양과 각 국가의 교역 여부가 서구사회에 미친 영향과 반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